

## 경북동해안지역 경제 일지

(2021년 6월중)

### 6. 1일 ▶ 영덕군, 국내 최대 '친환경 에너지 생산도시' 발돋움

- 영덕군은 지난해 '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' 지정으로 기존 관광, 농업, 어업을 넘어 에너지 관련 산업을 통한 국내 최대 친환경 에너지 생산도시로 거듭남
- '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'에 2025년까지 국비 등 1조원 투입,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100개 기업 입주 시 생산유발효과 1조4,189억, 부가가치유발 4,878억, 일자리 창출 1만106명으로 예상
- 에너지산업혁신단지 성공의 열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'영덕종합지원센터'를 건립, 산자부·경상북도·영덕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산업 집적화도 단계적으로 추진

### 6. 1일 ▶ 포항시, '포항지식산업센터' 준공

- 포항시는 5월 31일 흥해읍 이인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일원에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의 중심이 될 '포항지식산업센터'\* 준공식을 개최

\*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

- 경북도와 포항시는 2019년부터 포항 북구 흥해읍 이인리 포항경제자유구역(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)에 240억원을 들여 지하 1층, 지상 6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왔으며, 1~3층에는 '바이오프린팅 인공장기 상용화 플랫폼'을 비롯해 바이오산업 특화 입주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4~6층에는 정보통신기술, 소프트웨어, 그린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

## 6. 2일 ▶ 영덕군, 고용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올해 첫 선정

- 고용노동부의 '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(복지서비스부문)\*'에 영덕군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

\*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

- 영덕군기초푸드뱅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, 5~60대의 퇴직 전문가 5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참여자들은 영덕군영덕군기초푸드뱅크의 중점사업인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·생활용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, 홀로 계시는 어르신,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해주는 일 등을 담당

## 6. 7일 ▶ 울릉군, 양식 어류 지역내 자급자족 발판 마련

- 울릉군은 최근 울릉군이 자체 생산한 양식 어류로 지역 내 활어회 자급자족의 발판을 마련하고, 북면 현포리 해상 양식시설에서 육성한 어류를 울릉군수협 위탁 판매를 통해 지역 활어 횃집에 공급할 계획

- 지역 특성에 맞는 해삼, 전복, 어류 등 우량종묘를 중간육성, 생산해 어촌계 어장 및 지역 연안에 방류하고 지역 연안에 서식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종자를 생산, 육성해 울릉도 양식 수산물 자원을 증강시키고, 저렴한 양식어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에 기여

## 6. 7일 ▶ 포항시, 마이크로바이옴 핵심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

- 포항시가 경상북도, 포스텍과 함께 교육부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가 주관하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\*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

\* 대학의 연구개발(R&D)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'핵심연구지원센터(Core-Facility)'의 조성·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- 핵심연구지원센터의 활용·운영·관리 고도화를 위해 연구 장비 구축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며, 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6년간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필수적인 시설인 무균동물시설 (Germ Free)과 유세포분리/분석장비(FACS)를 집적시킨 센터를 구축해 국내 산학연 기관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으로 발전시킬 계획

## 6. 16일 ▶ 경주시, 첫 자전거 교량 '월령교' 올 연말 개통

- 경주예술의전당과 금장대를 잇는 '월령교'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조성중
- 사업비 45억원 전액 국비로 조성되는 월령교는 길이 237m, 폭 5m로 자전거나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지만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며, 월령교가 개통되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은 '경주예술의전당'에서 형산강을 건너 신라시대 사찰 금장사에서 이름을 따온 경주 최고의 전망대 '금장대'와 청동기 시대 바위그림으로 잘 알려진 '경주 석장동 암각화'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음